

韓 제조업 위기, M&A 제도 바꾸고 위험사업 투자를

산업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언
수출정책·제약심화·수입증가 '3중고'
주력산업 구조전환부터 이뤄져야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정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발표'를 통해 "제조업 향상을 위해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은 현재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부가가치 기준 3% 비중을 유지 중이다. 주력산업 생산·수출·총하 부문은 세계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 안에 있다.

한국은 현재 조선해양·디스플레이·반도체·통신기기 분야에서 세계 생산 1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4위, 자동차·가공작업기계·철강 부문은 6위권에 자리한다.

다만 한국 제조업의 전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3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제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5%라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제조업의 부상도 한국을 위협한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국제 경쟁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최대 중국 연구소 독일 메릭

〈주요 산업의 경쟁우위 진단〉

	성장성	수요구조		공급구조		경쟁강도
		안정성	차별성	진입장벽	부가가치	
자동차	저	중	중	중	중	상
조선	저	중	상	상	중	중
기계	중	하	하	중	하	상
철강	저	하	하	중	중	상
화학	중	중	중	중	중	상
반도체	고	상	상	상	중	중
디스플레이	고	상	상	상	중	중
통신기기	저	하	중	중	하	중

주: 경쟁우위 진단은 산업 간 비교가 아니라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우위 진단 결과를 의미함.

[자료=산업연구원]

스(MERICS)도 지난 2016년 중국의 '제조 2025' 사업 추진으로 한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이미 직접적으로 타격받았다고 진단했다. 주력산업 시장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급구조의 변화와 경쟁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현재 제조 세계 1위인 조선·통신기기 등 분야의 성장성을 낮게 평가했다.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생산·수출 부문에서 제품구조 고도화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해양의 경우 기본설계와 기자재, 모듈, 개조 생태계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원격모니터링이나

설비운영 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디스플레이는 핵심제조장비의 일본의 존도가 높고, 스마트폰의 경우 플랫폼·모바일SW·핵심기술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제품 기획역량과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대량생산기반 제품 비중이 높고, 노

동·자본 등 요소 투입형 성장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요소생산성이나 혁신활동이 낮다는 고언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 주력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 진출에 주력했다"며 "양적 규모 확대에 주력했으나 제품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수요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대중 수출 정책'과 '주요 시장 수출확대 제약 완화', '내수 수입비중 증가'란 3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은 주력산업의 구조전환부터 한다. 구체적 주요 추진전략은 ▲한국형 발전전진과 제조업 혁신 로드맵 수립 ▲생산구조 혁신과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공정혁신과 장비산업 고도화 연계 ▲산업간 연결·협업을 통한 새 생태계 조성 ▲가치사슬 도약을 위한 제조연관 서비스업 발전 ▲혁신주도 핵심인력 확보·구축 ▲산업정책 중앙통제태위 정립 등이다.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은 산업발전단계와 경쟁우위를 고려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제품구조 전환과 가치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취한다.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공동투자에 대한 경쟁제도와 지배구조 등 기존 제도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정책을 기업, 교육, 교육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시장 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프로젝트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의 새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개입에 의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이통사-케이블 M&A 3년 만에 재개

LGU+, 인가 신청서 제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심
시장 지배력 약해 허가 기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M&A 불허 결정 이후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 입장)

3년 만에 또 다시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를 위한 인가 신청서를 지난 15일 정부에 제출했다. 심사대 위에선 공정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 이내까지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포인트는 공정위 심사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을 독과점 폐해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총 8건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료보정 기간을 이유로 장장 7개월 간 நட장심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3년 전과 기류가 달라졌다. CJ헬로 인수 주체도 바뀌었고, 글로벌 유료방송 시장 경쟁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시장 독과점 우

려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는 심사에서 점유율을 지역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결합하면 전국 23개 방송 구역 중 21곳에서 시장 점유율이 46.9~76%에 이르러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대상 시장을 권역(지역)별로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방통위는 전국 단위 시장 분석을 추가한 '201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등장해 그간 방송 권역별 시장 획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전국 단위의 시장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 가입자 수도 경쟁상황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결합해도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계열을 넘어서지 못한다. 당시처럼 시장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M&A를 불허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인수 주체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바뀐 점도 심사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국민의 생명
금융 파트너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져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소중한 우리 아이 미래까지 든든하게
☎️☎️☎️ KB The드림아이중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